

# 아나키스트 柳子明의 자료 현황과 새로 발굴한 手記의 성격

박결순\*

- 
- I. 글머리
  - II. 류자명의 자료 현황
  - III. 류자명 관련 자료의 公刊
  - IV. 새로 발굴한 手記
  - V. 수기의 상충 사실
  - VI. 향후 과제
- 

## I. 글머리

류자명(1894~1985)은 충청북도 충주군 이류면 영평리 출신으로 일 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로서, 해방 후에는 중국에 거주하며 뛰어난 농학자로서 일생을 마친 인물이다. 그는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남다른 족적을 남겼다. 수원농림을 졸업한 그는 1919년 고향인 충주간이농업 학교에 재직 중 제자들과 함께 3·1운동을 계획하다가 탄로되자 곧 상경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한청년당 등에 참여하였고, 시대적 전환기에 새로운 아나

---

\*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키즘을 수용하여 의열단,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조선민족전선연맹 등을 이끌며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그의 사상은 철저하였고, 투쟁은 치열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그는 김원봉·김성숙과 함께 민족주의 좌파 트로이카로서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남과 북에서 모두 훈장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다. 먼저 북한에서는 1978년 그가 농업과학 분야에서 이룬 탁월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급 국기훈장’을 수여하였다. 이어 남한에서는 1991년 그의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하여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남북으로부터 모두 훈장을 받기는 하였으나, 서훈의 공적이 다른 것은 분단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류자명의 삶은 매우 극적이었다. 그는 1950년 귀국의 부푼 꿈을 안고 대만 기류항에서 홍콩까지 왔다가 바로 그날 6·25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귀국을 포기하고 말았다. 전쟁이 그의 귀국을 막은 것이었다. 이후 조선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朝僑’로서 살았고, 자식들도 조선족으로 입적하였다. 그의 중국 거주와 모국의 분단 현실은 고향으로의 귀국을 어렵게 하였다. 그러던 1957년, 그는 북한의 요청으로 귀국을 결심하고 중국 생활을 청산하였다. 그러나 뒤늦게 그가 농학 연구의 인재임을 깨달은 중국 고등교육부가 외교부에 귀국을 막아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또 좌절되고 말았다. 이번에는 국가 이익을 고려한 중국의 방해로 말미암아 귀국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의 귀국은 2002년 유해 봉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참으로 멀고도 기구한 귀국 길이었다.<sup>1)</sup>

본고는 이 같은 류자명의 관련자료 현황을 정리하고, 필자가 조사과정에서 새로 발굴한 手記 2種에 대해 최초로 공개하고 논의하려는 것이다.<sup>2)</sup> 류자명에 대하여는 국내와 중국에서 주목하여 왔으나, 아직 미

1) 1985년 사거 후 장사의 약록산 기슭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던 그의 유해는 2002년 3월 19일 대전현충원으로 봉환, 고국의 품에서 영면하게 되었다 (애지 제2-964).

2) 류자명의 새 手記는 필자가 중국 長沙에 거주하는 그의 아들 柳展輝의 집을 방문하여 자료를 조사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줄져 『충북의 독립운동

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sup>3)</sup> 그의 독립운동 시기는 물론 해방 후 농학자로서의 업적도 밝혀져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 농학자로서 류자명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높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분야의 연구가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sup>4)</sup> 본고는 이 같은 목적에서 류자명에 대한 자료 목록을 공개하고, 새로 발굴한 그의 수기 2종을 기존에 발간된 수기 『한 혁명자의 회억록』<sup>5)</sup>과 대비 분석하여 수기의 성격을 밝히고 특히 상충되는 사실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향후 추진하여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류자명 연구와 기념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 II. 류자명의 자료 현황

필자는 2006년·2007년·201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중국 장사에 가서 류자명 관련 자료를 조사한 바 있다. 모두 중경 임시정부 청사의 공동 조사 요청에 응한 자료조사였다. 현재 장사에는 호남성 당안관과 호남대학 당안관, 류전휘의 집에 그와 관련된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전자는 주로 교수 초빙서와 호남농학원 재직 시절의 학사 관련 자료

---

과 독립운동가』(국학자료원, 2012)에 원문과 함께 번역본을 첨부하여 학계에 소개하였다.

3)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이호룡, 「류자명의 아나키스트 활동」, 《역사와 현실》 53, 한국역사연구회, 2004.

한상도, 『한국독립운동의 시대인식 연구』, 경인문화사, 2011.

4) 류자명은 1984년 중국농학회로부터 ‘농업과학 연구, 교육, 보급, 행정 공작 50년 이상 종사자, 75세 이상 원로 농업 과학자’ 칭호와 함께 표창장을 수여받았고, 1985년에는 부총리 方毅가 서문을 쓴 『中國現代農學家傳』(金善寶 主編, 湖南科學技術出版社)에 제3위에 배열되었다. 또한 1996년에는 호남성과학기술협회가 선정한 ‘제1회 호남 과학기술의 별’ 80인의 한 명으로 선정되는 등 호남성은 물론 중앙 학회에서의 평가도 최상급이다.

5) 류자명, 『한 혁명자의 회억록』(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자료총서 제14집, 1999).

이며, 후자는 대부분 벼·포도·감귤·장미 등 농학 관련 그의 논문과 강의록 원고류가 대부분이다. 간혹 농학 이외의 친필 자료들이 있으나,<sup>6)</sup> 독립운동 관련 자료가 전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수차에 걸친 거주지 이동과 문화대혁명 등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나마 이 정도의 자료라도 보존된 것은 아들 류전휘의 효성 때문이었다.<sup>7)</sup>

호남성 당안관 소장자료는 여타 당안관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인을 내세워 일부만 수집할 수 있었다. 한편 호남성 도서관에도 류자명이 발표한 논문을 수록한 잡지 등이 소장되어 있으나,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조사하여 수집하였기 때문에 중복 수집의 수고를 할 필요는 없었다.

호남농업대학교 당안관은 류자명의 자료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곳으로 판단되나, 전혀 정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류전휘의 증언에 의하면 류자명이 은퇴 후 동 대학 도서관에 자신의 도서와 자료를 일괄 기증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등 자료의 보존과 관리가 엉망이었다. 다만, 이곳에서 류자명의 장례식 사진 앨범을 발견하여 복사 수집한 것은 다행이었다.<sup>8)</sup>

호남농업대학교에서의 자료수집은 기대 이하였으나, 이곳에서 만난

---

6) 이 자료들은 대개 중국 친우와 그 후손 및 동포들과 주고 받은 서한과, 정기적으로 북한에 보낸 축하 편지, 수기의 초고 등이다.

7) 柳展輝(일명 柳基立)는 류자명의 넷째아들로 1942년 계림에서 출생하였고, 1966년 호남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成都에 있는 水電部 서남전력연구원 기사를 거쳐 1981년 호남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재임하다가 2002년 정년퇴직 하고 장사에 거주하고 있다. 재임 동안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장사시 상무위원과, 호남성 위원을 역임하였다. 한편 류자명의 딸 류득로는 북경경찰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유학한 후 북경과학기술대학에서 금속학자로 재직하였다. 류전휘의 말에 의하면 류득로의 집에도 류자명의 서한 등 자료의 일부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나, 내용과 분량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8) 류자명은 1985년 4월 17일 장사에서 사거하였는데, 이 사진은 4월 23일 金盆嶺長沙殯儀館에서 열린 「向柳子明教授遺體告別式」과 동 25일 호남농학원에서 거행된 추도대회 광경으로 42장으로 되어 있다.

류자명의 제자들은 아직도 류자명의 훈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이 대학 부총장 盧向陽은 필자를 직접 영접하며 안내해 주었는데, 외빈 숙소인 外賓傳家樓에 들어서며 적지 않게 놀랐다. 필자의 방문 소식을 들은 류자명의 제자 교수 朱先明(2006년 당시 84세) 등 15명이 스승의 고향에서 온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70~80대 원로들이 노구를 이끌고 류자명을 추억해 주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돌아가며 말해주는 류자명에 대한 기억에는 진심어린 존경과 추모의 정이 넘쳐흘렀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의 애제자였던 羅澤民(당시 78세)이 작성한 「獻辭」를 류전회가 낭독할 때 간담회장은 추모식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숙연해졌다.<sup>9)</sup> 아직도 많은 장사의 중국인들이 조선인 류자명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sup>10)</sup>

호남대학교 당안관에는 류자명이 부임하였다가 호남농학원(후에 농업대학으로 개편)으로 분리되어 나간 1950~1953년간의 「聘書」와 「公函」 등 일부 자료가 보존되어 있어 복사 수집할 수 있었다.

류전회의 집에는 다수의 류자명 유품과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다. 문건자료는 대부분이 류자명이 농학 연구와 강의를 위해 작성한 원고와 교안류이다. 문건자료는 라면박스 2개 분량이었었는데 장미, 포도, 쌀, 감귤 등 그가 원예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농학 관련 내용이었다.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는 필자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었으나, 농학사를 전공하는 분야에서는 더없이 귀중한 자료로 사료된다. 또한 정성령, 파금, 이달, 사진 등과 같은 중국의 유명 인사나 김학철 등 동북 거주 독립운동가와 왕래한 서신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기 초고와 김구, 신채호에 대한 기고문 원고 등도 분류나 정리되지 않은 채 담겨져 있었다. 2006년 필자가 중경임시정부청사 관계자와 공동으로 호남대학

9) 나택민은 필자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獻辭」를 고국으로 모셔간 스승의 묘소 앞에서 태워달라며 부탁하였다. 필자는 귀국 후 곧 대전현충원의 류자명 묘비 앞에서 이 「獻辭」를 燒紙해 드렸다.

10) 박결순, 「조선인 류자명을 품고 사는 중국 창사(長沙)의 사람들」, 《월간 독립기념관》 2006년 5월호, 24~25쪽.

당안관과 류전휘 닥 소장 자료를 조사하여 입수한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sup>11)</sup>

<2006년 류자명 관련 자료 수집 목록>

- I. 聘書類 및 대학 관련 자료(호남대학 당안관 및 류전휘 소장)
  1. 國立湖南大學 聘書(제35호, 農藝學系 主任, 1950. 8)
  2. 國立湖南大學 聘書(제287호, 農藝學系 教授, 1950. 8)
  3. 國立湖南大學 人事科 公函(1950. 9)
  4. 湖南大學 聘書(校區規劃委員, 1950. 10. 6)
  5. 湖南大學軍事幹部學校學生保送委員會 聘函(1950. 12. 12)
  6. 湖南大學 聘書(編輯委員, 1950. 12)
  7. 湖南大學 聘書(農業學院遷移委員, 1951. 2)
  8. 湖南省人民政府聘任通知書(湖南省農林技術委員, 1951. 4. 10)
  9. 湖南農學院聘書(農藝學系 教授兼主任, 1951. 7)
  10. 湖南大學1950學年教員名冊(1950. 10)
  11. 湖南大學 農業學院 農藝學系 概況表(1950)
  12. 柳子明 親筆 推薦書(1950. 11)
  13. 湖南省科學技術協會에서 柳子明에게 보낸 公函(1973. 9. 12)
- II. 重慶 당안관 소장 자료
  1. 重慶市警察局 문서(韓人 조사표, 1944)
  2. 重慶市財務局 문서(韓人 조사표, 1944)
- III. 書信類
  1. 정성령 → 柳子明
  2. 朱洙 → 柳子明
  3. 李達 → 柳子明
  4. 謝眞 → 柳子明
  5. 柳靜 → 柳子明

---

11) 이 자료는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로 등록하였다.

6. 沈克秋 → 柳子明
7. 沈克秋 → 柳子明
8. 서정필 → 柳子明
9. 심병섭 → 柳子明
10. 王兆吉 → 柳子明
11. 리춘자 → 柳子明
12. 朴基成 → 柳子明
13. 王鎮沂 → 柳子明
14. 金學鐵 → 柳子明
15. 李朝宗 → 柳子明
16. 金忠植 → 柳子明
17. 達人 → 柳子明
18. 不明 → 柳子明
19. 不明 → 柳子明
20. 不明 → 柳子明
21. 柳子明 → 조림천, 박태권

#### IV. 호남성 당안관 문서

1. 湖南省政府指令 第1315號(1938. 7)

#### V. 류자명 친필 원고류

1. 申采浩先生的一生(300자 원고지 48쪽)
2. 申采浩(300자 원고지 18쪽)
3. 關於金九先生的回憶記(300자 원고지 7쪽)
4. 馬克思主義教育方針和教學方法(300자 원고지 7쪽)
5. 簡明中國通史(대학노트 4쪽)
6. 熱烈慶祝朝鮮民主主義共和國成立二十四周年(300자 원고지 11쪽)
7. 回憶錄 草稿(순서가 섞이고 완본이 아님, 300자 원고지 80쪽)

#### VI. 북한관련 자료

1. 柳子明이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 초고
2. 柳子明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 초고

3. 駐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公函(류자명에게 공민권 부여, 1955. 7. 18)
4. 駐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公函(류자명 여권 연기, 1961. 2. 18)
5. 駐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公函(김일성 신년사 학습조 장관인 류자명에게 학습조직을 요구한 내용, 1984. 11. 30)
6. 주중 조선 공민이 김일성의 만년장수를 축원하는 페넌트 사진 (1973. 9. 9)

VII 기타 자료

1. 『戴勳章的園藝學家 柳子明傳』 초판본 복사본(安奇, 1994, 中國農業出版社)
2. 『戴勳章的園藝學家 柳子明傳』 2판본(安奇, 2004, 中國農業出版社)
3. 『中國現代農學家傳』(湖南科學技術出版社) 중 柳子明 설명 부분

당시 충주시에서도 류자명 자료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2006년 1월, 류자명 선생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며 충주시에서 생가 복원과 전시관 조성을 제시하였고, 류전회는 전시관에 전시용 자료를 기증하기로 각서를 체결하였던 것이다.<sup>12)</sup> 이를 대비해 류전회가 정리해 둔 류자명 유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sup>13)</sup>

12) 류자명 유물의 충주시 기증을 위해 충주시 학예사가 류전회의 맥을 방문하여 유물을 조사하고 인수해 왔다. 기증된 류자명 유품은 2007년 3월 2일~3월 25일 동안 충주박물관에서 개최된 「류자명선생 유품특별전」에 전시되었고, 현재 충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당시 충주시가 작성한 류자명 유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수 량	비 고
기념품 및 소품류	28건 39점	상장, 기념패 등
가구류	15건 18점	TV, 라디오, 침대 등
의복류	24건 24점	코트류, 중산복, 조끼 등
주방용품류	58건 98점	식기류, 향아리 등
원고류	11건 11점	육필 원고류
계	136건 190점	

<류진휘 작성 류자명 유품 목록>

第一類：特別物件

- No. 001－木盒裝黑色小石印(領工資常用此印)
- No. 002－陽文石印(友人叶松齡所贈)
- No. 003－陰文石印(友人李毓華所贈)
- No. 004－桃源印石(尙未刻字, 親家鐘曉初所贈)
- No. 005－湖南農學院校徽
- No. 006－公文包(內有柳子明親筆名字)
- No. 007－銀筷子兩雙
- No. 008－CYMA鬧表(過香港時購買, 已損壞)
- No. 009－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三級國旗勳章(1978年 12月 獲得)

第二類：家具与生活用品

- No. 010－書桌椅一套
- No. 011－折疊椅二對
- No. 012－床頭櫃
- No. 013－木手杖
- No. 014－瓷壽星(友人周汝杭賀柳子明九十壽辰所贈)
- No. 015－青綠色沙發一套(兩張單人沙發和一張茶几, 廣東產, 友人羅士權幫助購買)
- No. 016－火炬牌座鐘
- No. 017－手搖縫紉機
- No. 018－立式衣架
- No. 019－14寸黑白電視機(已損壞)
- No. 020－鑽石牌台式電風扇
- No. 021－蝴蝶牌腳踏縫紉機
- No. 022－人造革皮箱

---

13) 이 목록은 류자명의 유물과 자료를 충주시에 기증하기 위해 류진휘가 작성한 것이다. 선물한 사람, 產地, 유물의 상태까지 꼼꼼히 정리하였다.

- No. 023 - 樟木衣箱
- No. 024 - 蘭色早期洗衣机(廣東產, 友人羅士權幫助購買)
- No. 025 - 綠色陶質米缸
- No. 026 - 白瓷壇
- No. 027 - 花瓷壇
- No. 028 - 綠色泡菜壇(柳子明常用此壇做韓國泡菜)
- No. 029 - 播鉢和播杆
- No. 030 - 帶盖玻璃瓶一對
- No. 031 - 瓷花瓶一對(湖南省科學技術協會所贈)
- No. 032 - 綠色瓷烟灰缸
- No. 033 - 木雕: 水戶農人形(日中農交茨城縣協會 1978年 5月贈)

第三類: 衣物

- No. 034 - 蘭色貂皮短外套
- No. 035 - 咖啡色人造革外套(加拿大產, 女儿柳得摺贈)
- No. 036 - 藏青色中山裝一套
- No. 037 - 棕黃色帶馬甲西裝上衣(在台灣時穿着)
- No. 038 - 灰色鴨絨背心
- No. 040 - 灰色中山裝一套
- No. 041 - 黑色呢子長大衣
- No. 042 - 蘭色棉袴
- No. 043 - 夫人劉則忠衣物 6件
- No. 044 - 床單2條

第四類: 手稿

尙在整理中

第五類: 其它

尙在清理中

### Ⅲ. 류자명 관련 자료의 공刊

류자명 수기가 처음 활자로 공간된 것은 『나의 회억』이다.<sup>14)</sup> 류자명이 심극추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자신의 자전적 수기를 저술할 생각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생애를 후대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자 한 것이었다. 그 자전 수기의 연습작이자 구체적 동기가 된 것은 김구에 대한 회억록과,<sup>15)</sup> 신채호를 외국 사학가로서 소개한 글이 북경에서 발행되던 잡지에 잇달아 게재되면서 부터였다.<sup>16)</sup>

1982년부터 류자명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자전적 수기를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요령인민출판사에서 류자명 회고록 출판을 기획하고 편집을 담당하던 김보민에게 이 일을 맡겼다. 류자명은 매우 신중하게 회억록을 집필해 갔다. 그는 백화문과 한글의 두 종류의 회억록을 썼다. 백화문으로 된 회억록은 중국 현대문학의 최고봉으로 손꼽히는 친우 파금에게 보내 교열을 의뢰하였다. 류자명을 형이라 부른 파금은 일찍이 류자명에게 회고록을 쓰도록 종용하였다. 파금은 류자명의 삶이 중국항일투쟁사에서 중요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하며, 만일 형이 회고록을 쓴다면 자기가 글을 손봐주겠다고 약속한 터였다.<sup>17)</sup> 또한 류자명은 오랫동안 한글을 사용하지 않아 한글 표기법에 문제가 있자, 한글본을 북경중앙방송국 한국말방송 주임인 金亨植에게 교열을 받게 하였다.<sup>18)</sup> 이런 과정을 거쳐 최초로 공간된 류자명의 수기가 『나의 회억』이다.

그러나 『나의 회억』은 류자명의 원전과 크게 다르다. 우선 원전에서

14) 류자명, 『나의 회억』, 료녕인민출판사, 1984.

15) 柳子明, 「高風亮節的金九先生」, 《世界史研究動態》 1980년 10월호.

16) 柳子明, 「朝鮮愛國歷史學家申采浩」, 《世界史研究動態》 1981년 2월호.

17) 류자명과 파금과의 친교관계와 회억록 교열에 관하여는 安奇, 『戴勳章的園藝學家 柳子明傳』 2판본, 中國農業出版社, 2004, 68~73 참조.

18) 류자명, 『한 혁명자의 회억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제14집), 1999, 582~583쪽.

상당 부분이 가감된 채 간행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원전은 200자 원고지 900여매 분량이나, 『나의 회억』은 600여매(12만자) 분량이라서 원전의 2/3에 불과하다.<sup>19)</sup> 또한 조선족의 손에 의해 편집되고 윤문이 되어 어떤 부분은 본래의 의미를 크게 상실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활자본의 간행이 시급히 필요하다.

다행히 1991년 친필 원전 원고가 독립기념관에 의해 수집되어, 1999년 영인 간행됨으로서 그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그러나 원전의 상태가 불량하여 가독성은 부족한 편이다.

류자명의 자료가 묶여 간행된 것은 『유자명자료집①』이 유일하다.<sup>20)</sup> 이 자료집은 4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류자명이 쓴 논설류 26편, 2부는 서한류 17통, 3부는 제자와 동료 등 관련 인물 19인의 증언 구술 녹취록, 마지막 4부는 원문으로 구성되었다. 류자명에 관한 최초의 자료집으로서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하고, 구성도 비교적 짜임새가 있어 보인다. 또한 류자명의 고향에서 지역의 인물을 기리고자 하는 열정과 충정도 평가할 만하다. 예성문화연구회와 충주MBC는 류자명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주최한 바 있으며,<sup>21)</sup>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하기도 하였다.<sup>22)</sup> 그러나 자료집 발간의 계획 아래 전체적인 자료 수집을 선행하여 완결된 상태에서 자료를 분류하고 해제하여 순차적으로 발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선 수집된 자료를 묶은 데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 그 후속집이 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료집간행위원회도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다음으로 전기류의 간행이 있었다. 류자명 전기는 중국에서 먼저 간

19) 류자명의 친필 원고는 읽기가 난잡한 상태이다. 필자는 이 원고의 워드 작업을 마쳤고, 주석을 붙여 활자본으로 간행할 계획이다.

20) 충주시·충주MBC, 『유자명자료집①』, 유자명자료집간행위원회, 2006.

21) 예성문화연구회는 2003년 「류자명(홍식)선생 조명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를, 충주MBC는 한국근현대사학회와 공동으로 2005년 「中國 大陸에 남긴 柳子明의 자취」란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주최한 바 있다.

22) 충주MBC는 2004년 특집다큐멘터리로서 「독립운동가 유자명」(제1부: 조국 독립을 위하여, 제2부: 농학자로서의 삶)을 제작 방영하였다. 비교적 류자명의 삶을 잘 구성하여 강의 보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행되었는데, 『戴勳章的園藝學家 柳子明傳』이 그것이다. 저자는 安奇(女, 1930년 長沙生)인데, 그녀는 30여 년간 지방의 신문과 TV사의 기자로 활동하다가 1980년부터 10년간 호남농학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류자명에 감화되었고, 류자명의 친구이자 전 호남성장이었던 정성령의 요청으로 그의 전기를 쓰게 되었다. 그녀는 책머리의 獻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反과시즘 혁명투사, 국제주의자, 저명한 원예학자, 韓籍 친구 류자명 교수. 그는 中朝 인민의 우의를 위하여, 중국 혁명 사업을 위하여, 농업교육과 과학연구에 탁월한 공헌을 하여 장차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영원히 中朝 양국 인민들의 마음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sup>23)</sup>

그녀는 류자명과 함께 ‘忘年之交’를 나누며 이 전기를 저술하였다.<sup>24)</sup> 따라서 114쪽에 불과하지만 자료적 가치는 크다.<sup>25)</sup> 하지만,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보다는 중국에서 농학자로서의 삶에 치중되고, 그의 말년의 생활을 다소 감상적으로 기술한 점에서 한계 또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며 만들어진 또 하나의 전기가 『행동하는 지식인 류자명평전』이다.<sup>26)</sup> 저자는 연변대학을 졸업하고 연변인민출판사

23) 安奇, 『戴勳章的園藝學家 柳子明傳』 2판본, 中國農業出版社, 2004, 책머리의 「謹以此書獻給」.

24) 필자는 2006년 장사를 방문하였을 때 류진휘의 소개로 安奇를 만났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류자명에 대한 열정적인 회고담은 그치지 않았다.

25) 이 전기는 다음과 같이 26장으로 구성되었다. 引子, 1. 告別忠州郡, 2. 當了議員, 3. 回漢城, 4. 參加“義烈團”, 5. 良師與諍友, 6. 愛國志士羅錫鑄, 7. “朝鮮民族革命黨”, 8. “東方被壓迫民族聯合會”, 9. 難忘的情誼, 10. 流亡·戰鬪, 11. 突圍, 12. 新的抉擇, 13. 壯麗的一幕, 14. 在湖南農學執教, 15. 從啓示到實踐, 16. 園藝的母國 花卉的故鄉, 17. 關於葡萄的故事, 18. 水稻起源地的探索, 19. 爲柑橘正名, 20. 不平凡的友誼, 21. 最高的獎賞, 22. 柳子明與巴金, 23. 心語, 24. 魂歸故里, 25. 架起友誼的金橋, 26. 柳子明教授生平大事記.

에 근무하며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연변작가협회 소설창작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던 류연산이다. 그는 연변대 김병민 총장으로부터 류자명에 관한 자료를 인수받아 이 전기의 집필에 착수하였다. 이 전기의 발행은 충주시의 재정지원이 있었으나, 충북대학교 임동철 총장(당시 국문과 교수)의 주선에 힘입은 바 크다.<sup>27)</sup>

이 전기는 安奇의 전기보다는 원 자료에 충실하여 학술적 객관성이 제고되었다는 점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기 또한 중국 조선족의 저술이기 때문에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오류가 산견되며, 평전이 지녀야 할 조건을 완비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류자명의 전기나 평전은 중국인에 의해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류자명의 삶을 객관적으로 충실히 담아내지는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계의 맹성이 필요하며, 영원한 조선인 류자명을 실사구시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 IV. 새로 발굴한 手記

류자명의 친필 수기는 『한 혁명자의 회억록』이 유명하며, 그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류전회가 소장하고 있는 류자명 관련 자료를 조사하던 도중 그의 또 다른 친필 수기가 있음을 발견하였다.<sup>28)</sup>

새로 발굴한 친필 수기는 「我的簡介」와 「我在中國六十多年」 2종이다.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각각 84매와 56매에 불과하여 분량 면에

26) 류연산, 『행동하는 지식인 류자명평전』, 충주시·예성문화연구회, 2004.

27) 류연산, 『행동하는 지식인 류자명평전』, 520~521의 「후기」 참조.

28) 당시 자료 조사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이 자료의 공개를 허락해 주신 류전회 교수께 감사드린다. 또한 필자와 함께 현지에 동행하여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도와준 중경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李鮮子 부관장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서 『한 혁명자의 회억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我的簡介」는 1974년 3월 호남농학원 재직 시절에 達仁의 요청으로 자신의 약력을 정리한 것이다.<sup>29)</sup> 「我在中國六十多年」은 1979년의 사실까지 기술하고 있어 그 후에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수기들은 『한 혁명자의 회억록』과 같이 400자 원고지에 정리하였는데, 일부는 원고지가 아닌 백지에 기술하기도 하였다.

「我的簡介」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시기와 출생지
2. 조선이 일제에게 병탄당하다
3. 1919년 3월 1일 조선에서 독립운동이 발발하였다
4. 처음 출국하여 上海에 도착하다
5. 上海에서 서울로 돌아오다
6. 다시 출국, 먼저 北京으로 가다
7. 天津에서 ‘朝鮮義烈團’에 가입하다
8. ‘義烈團’ 단원이 1927년 중국 제1차 대혁명운동에 참가하다
9. 무한에서 체포되다
10. 무한에서 남경으로
11. 한복염열사기념 합작 농장에서
12. 泉州의 여명중학에서
13. 입달학원 농촌교육과에서
14. ‘9·18’ 전후 나와 조선혁명의 관계
15. 입달학원을 떠나 남경으로 가다
16. ‘조선민족전선연맹’과 ‘조선의용대’
17. 중경에서 복건으로

---

29) 達仁은 류자명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입달학원 설립자 匡互生の 둘째 딸이다. 류자명은 특별히 광호생의 교육사상과 교학방법을 설명하는 「匡互生先生印象記」(1974)를 발표한 바 있다(박길순, 『충북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사』, 583쪽).

18. 중경에서 조선혁명전선통일회의에 참석
19. 계림에서 다시 복건으로
20. 복안에서 대만으로 가다
21. 대만을 떠나 장사로 가다
22. 사상의 변화 과정

한편 「我在中國六十多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조선 '3·1'운동 이후 내가 처음 중국에 오다
2. 임무를 띠고 귀국하다
3. 두 번째로 조국을 떠나 북경으로 가다
4. '조선의열단'에 참가하다
5. 중국 북벌전쟁 시기
6. 무한 경비사령부 看守所에서의 철창생활  
(7절부터 21절까지는 節名을 붙이지 않고 그냥 서술함)
22. 호남농학원의 신축
23. 일련의 정치사상 교육운동
24. 문화대혁명 10년 動亂의 시기
25. 호남 포도주의 새로운 탄생
25. 포도 1년 다작 결과의 재배 기술
26. 주요 논저

이를 보면 이 수기의 22절 이하는 「我的簡介」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즉, 「我在中國六十多年」은 제목 그대로 해방 이후 중국에서의 생활을 서술하는데 비중을 두었던 것이다. 특히 그가 호남농학원에서 원예학자로서 거둔 포도 다작의 성과와, 그 포도를 이용한 명품 포도주의 생산을 강조한 대목이 인상적이다. 이 수기의 말미에 정리한 주요 논저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농학자로서의 자신의 연구업적을 망라하고 있다.

「我的簡介」와 「我在中國六十多年」은 『한 혁명자의 회억록』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으로서, 구성과 체제는 대개 유사하다.<sup>30)</sup> 그러나 내용에서는 『한 혁명자의 회억록』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을 기술하거나, 일부 다른 부분도 눈에 띈다. 따라서 이 수기들은 류자명이 자신의 생애를 직접 정리한 것으로서, 특히 그의 귀국 포기 사유, 아나키스트에서 공산주의자로의 사상 전환 과정 등은 새로운 사실로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 V. 수기의 상층 사실

수기는 자기의 생애와 사상, 활동을 솔직담백하게 서술하기도 하지

---

30) 『한 혁명자의 회억록』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동방의 먹구름과 여명
2. 임시정부가 성립된 경과
3. 상해로부터 한성에 돌아와서
4. 한성에서 다시 북경에
5. 천진에서
6. 의열단의 내력과 반항
11. 남경에서 만난 사람들
12. 여명중학교로부터 입달학원으로
13. 김구와 애국단
14. 조선민족전선연맹과 조선의용대
15. 복건원예시험장
16. 항일전쟁과 계림생활
17. 파금과 ‘머리칼의 이야기’
18. 조선혁명 각 당파의 통일
19. 이국 향촌에서 맞은 8·15
20. 대만과 합작농장
21. 조선전쟁과 항미원조
22. 호남농학원과 사상개조운동
23. 호남농학원의 성립
24. 조선인민군 중국방문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방문단의 장사 방문
25. 국기훈장을 받다

만, 자기를 변호 또는 옹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역사연구에서 수기의 이용에 유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류자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한 혁명자의 회억록』과 「我的簡介」·「我在中國六十多年」에는 서로 상충되는 사실이 있다. 즉, 국적을 바꾸지 않고 ‘朝僑’로서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살아야 했던 그의 현실적·정치적 상황이 본의와 다른 기술을 하게 하였음을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첫째, 1950년 귀국하지 못한 사실의 기술이 상충된다. 그가 해방 직후 귀국하지 못한 까닭은 중국에서 재혼한 중국인 아내 劉則忠과 자식들을 차마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 자신이 생전에 회술한 바도 있다. 또한 아나키스트로서 남북 정권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정치적 여건도 작용하였을 것이다.<sup>31)</sup>

그는 1950년 6월 14일 기룡항에서 홍콩으로 가는 배표를 구입하였다. 6월 24일, 류자명 일가 4명은 정화암 가족과 함께 기룡항에서 영국 운선을 타고 배에서 하루를 보내고 25일 오후 홍콩에 도착, 동방여관에 투숙하였다. 그런데 이날 저녁, 조선 여권을 본 여관 종업원이 6·25전쟁 발발 사실을 알려주었다. 당황한 류자명은 이튿날 아침 큰 거리로 나가 신문을 사서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귀국이 불가해진 그는 곧 則忠에게 廣州에 있던 언니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처중과 아이들을 광주로 데려가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상해 입달학원에 있을 때 알게 된 趙谷初가 주임으로 있는 九龍의 眞光化學工場으로 가서 기숙하며 당시 호남성 부성장으로 있던 정성령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홍콩에 왔음을 알렸다.

『한 혁명자의 회억록』에는 그가 대만을 떠나 홍콩으로 온 것은 귀국을 위한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sup>32)</sup> 당시 8세였던 류전휘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sup>33)</sup> 그런데 「我在中國六十多年」에서는 이

31) 류연산, 『행동하는 지식인 류자명평전』, 403~405쪽.

32) 류자명, 『한 혁명자의 회억록』, 357~364쪽.

33) 류전휘는 홍콩에서 다음 행선지는 한국(부산)이었다고 회고하였다(박걸순, 『충북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649쪽).

사실을 『한 혁명자의 회역록』을 요약하여 비슷하게 설명하였으나, 「我的簡介」의 기술은 전혀 다르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 1950년 6월 25일 저녁 무렵 홍콩에 도착할 때 조선에서는 이미 전쟁이 발발하였다. 조선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어도 나의 마음은 이미 대륙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었다. 그러나 대만을 떠나기 전에 조선으로 간다고 해야만 대만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34)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기술이다. 그의 고향에 대한 향수는 매우 절절하였다고 한다. 특히 고향에 있는 아내 이난영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다고 한다. 그는 회고록을 집필할 당시 자신의 원고를 교열하기 위해 장사에 온 김형직에게 ‘이 세상에 달은 두 개’라고 말하였다고 한다.<sup>35)</sup> 심지어 남한으로의 귀국이 불가하자, 그는 1957년 북한으로라도 귀국하기 위해 호남대학 교수직을 사직하고 장사 생활을 정리하기도 하였다.<sup>36)</sup> 胡馬依北風과 같은 처지였던 그가 당초 귀국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다. 말년의 그는 창밖을 응시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리랑’을 부르곤 하였다고 한다.<sup>37)</sup> 그토록 귀국을 꿈에도 그렸던 그가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도 귀국하지 않고 대륙으로 가려고 했다는 기술은 진심이나 본의와는 다른 기술이다.

둘째, 아나키즘에 대한 비판 부분도 진심과는 다르다고 여겨진다. 그는 독립운동 시기에 아나키즘 이론에 가장 정통한 아나키스트였다. 김원봉이 신채호에게 의열단 선언문인 「조선혁명선언」(1923)의 집필을 의뢰하며 류자명에게 이를 지원하도록 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조선혁명선언」에 나타난 아나키즘 이념은 신채호의 구상이라기보

34) 박결순, 『충북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581쪽.

35) 류연산, 『행동하는 지식인 류자명평전』, 512~513쪽.

36) 박결순, 「아나키스트 류자명의 망향가, 죽어서 이론 귀향의 꿈」, 《월간 독립기념관》 2012년 1월호.

37) 이는 필자가 전기를 집필한 安奇로부터 전해들은 증언인데, 그녀가 아리랑 곡조를 알 정도로 류자명이 자주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다는 류자명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정도이다.<sup>38)</sup>

류자명은 1920년 1월 일본에서 발생한 이른바 모리토(森戶辰男) 사건을 계기로 무정부주의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였고,<sup>39)</sup> 크로포트킨의 저작을 읽으며 아나키스트로 사상을 ‘轉變’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나키즘 수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크로포트킨의 저작 『러시아 문학의 현실과 이상』은 러시아 문학가인 꼬고리(高古里), 푸쓰킨(普斯金), 두우게네프(屠格涅夫), 톨스토이(托你斯托伊) 등 문학가의 작품을 비판적으로 소개한 것인데 당시에 그들의 작품이 일본말로 번역되어서 나는 두우게네프의 소설 『處女地』, 『아버지와 아들』, 『새 풍조』와 톨스토이의 소설 『復活』, 『戰爭과 平和』 등을 읽었었다. 그리고 또 크로포트킨의 자서전인 『한 혁명자의 회고』도 읽었었다. 이런 것은 나의 思想 轉變過程을 설명하는 것이다.<sup>40)</sup>

류자명은 공산주의자 金翰을 스승으로 모셨으나, 공산주의가 아닌 아나키즘을 수용하였다. 그것은 그가 민족 모순을 한국사회의 주요한 모순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었다.<sup>41)</sup> 류자명은 자본주의 체제와 민족주의에 실망하였다. 이에 민족 단위의 좁고 배타적인 세계관을 극복하고 아나키즘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염원하였다. 그가 부단히 중국 농촌을 무대로 한 이상촌 건설운동에 참여하였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sup>42)</sup> 특히 류자명은 동지들에게 아나키즘을 전파하는 매개적 역할

38) 朴杰淳, 「申采浩의 아나키즘 수용과 東方被壓迫民族連帶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8집, 2011, 202쪽.

39) 류자명, 『한 혁명자의 회억록』, 71쪽. 모리토 사건이란 東京大 교수이던 그가 《經濟學研究》 창간호(1920. 1)에 발표한 논문이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지녔다고 일본 당국에 의해 처벌당한 사건을 말한다.

40) 류자명, 『한 혁명자의 회억록』, 74쪽.

41) 李浩龍, 「류자명의 아나키스트 활동」, 《역사와 현실》 53, 2003, 227쪽.

42) 韓相燾, 「류자명의 아나키즘 이해와 한·중연대론」, 《동양정치사상사》 제7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 199~209쪽.

을 하였다. 그는 신채호에게 李石翁을 소개하였고, 대만인 아나키스트 林炳文을 소개하는 등 단체의 아나키즘 형성과 활동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sup>43)</sup>

류자명은 신채호뿐만 아니라 이회영·이을규 형제 등에게도 아나키즘을 전파하였다. 일본 유학 중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고 1921년 상해로 망명한 이정규가 러시아행을 결심했다가 포기한 것도 류자명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sup>44)</sup> 이정규가 아나키즘을 수용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일본 유학시절 접한 사회주의 사상이지만, 1921년부터 1923년까지 2년 여의 북경 생활 때 국내외 아나키스트의 영향으로 아나키즘을 수용한 것인데,<sup>45)</sup> 그 중 류자명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류자명은 「我的簡介」에서 자신이 신봉했던 아나키즘의 ‘반동적 본질’을 극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자신이 1927년에 쓴 「赤色の悲痛」이 공산주의의 입장에서 쓴 것이라고 말하여 자신이 일찍이 아나키즘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수용했음을 강조하였다.<sup>46)</sup> 나아가 그는 아나키즘이 ‘제1국제운동에서 시작하여 역대 국제적 무산계급 혁명운동 중에서 반혁명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스탈린의 말을 인용하여 ‘아나키스트는 마르크스주의의 진정한 적이다’라고 하였고, 모택동의 말을 인용하며 아나키즘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이 또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朝僑’로 살아야 했던 그의 처지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실의 누락 현상은 『한 혁명자의 회억록』과 같다. 그 대표적 사실이 金達河 처단사건에 대한 기술 누락이다. 그는 여기에서는 물론 「我在中國六十多年」에서도 의열단 활동에 대해 자부하며 상술하였다.

43) 박걸순, 「1920년대 北京의 韓人 아나키즘운동과 義烈鬪爭」, 《東洋學》 제54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3, 111~112쪽.

44) 이정식 면담/편집 해설 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 민음사, 2006, 269~279쪽. 이는 정화암의 증언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45) 황동연, 「이정규, 초국가주의적 한국 아나키즘의 실현을 위하여」, 《역사비평》 93, 2010, 204~205쪽.

46) 柳子明, 「赤色の 悲痛(상·중·하)」, 《朝鮮日報》 1927. 5. 13~5. 15.

그러나 1925년 3월 30일 그가 의열단원을 동원하여 결행한 밀정 金達河 처단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달하 처단은 류자명이 의열단 본부 차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회영, 김창숙 등과 협의한 후 다물단과 합작하여 단독으로 지휘하여 진행한 사건으로 평가된다.<sup>47)</sup>

이 사건은 실행자가 李仁洪·李箕煥 등 의열단원이었고, 현장에 남겨진 의열단의 사형선고서와 관련자들의 회고 등으로 볼 때 주체가 의열단임은 분명하다.<sup>48)</sup> 또한 일제도 이 사건을 다물단원인 黃益洙·李皓榮과 의열단원 류자명이 공모한 행동으로 파악하였다.<sup>49)</sup> 결국 이 사건은 류자명이 이회영 등 북경의 아나키스트 그룹과 협의하고, 의열단과 다물단을 연계하여 결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수기에서 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아무리 독립운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남북 분단 현실에서 지극히 북한 편향적 서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6·25 전쟁에 대한 서술 부분 등에서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가 1957년 북한으로의 귀국을 결심했던 것도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아내 두군혜와 아들을 중국에 남겨두고 홀로 귀국한 김성숙의 행보에서 그의 처지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VI. 향후 과제

류자명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독특한 존재이다. 그는 아나키즘이라

---

47) 李丁奎, 『又觀文存』, 50쪽.

48) 박대원, 『약산과 의열단』, 170~175쪽.

49)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 208쪽.

는 제3사상을 통해 독립운동을 추구하였다. 또한 해방 이후에는 중국에 거주하며 ‘국제우호 인사<sup>50)</sup>’로서 괄목할만한 농학 연구의 결실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 결과, 그는 유일하게 남북으로부터 모두 훈장을 받았고, 중국 학계에서의 평가 또한 대단히 높다. 따라서 류자명은 남북 분단을 극복할 가교적 인물로서, 또한 한중 우호의 매개적 존재로서 평가되어 마땅하다. 이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류자명의 평전과 자료집 발간이 시급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류자명 전기는 중국인에 의해 두 권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그 전기들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여 우리 손으로 실사구시적 평전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류자명 관련 자료를 망라한 자료집 발간도 서둘러야 한다. 필자가 조사, 수집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류자명 관련자료는 ① 친필 자전적 수기류, ② 신문 등에 기고한 논설류, ③ 농학 관련 논문과 저서(원고)류, ④ 서한류, ⑤ 활동과 관련한 일제측 문서류, ⑥ 호남농학원 재직 당시 당안자료류, ⑦ 증언류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집 발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필자가 중경임정청사 관계자와 함께 수집한 류자명 관련 자료는 상당량에 달한다. 가능하다면 독립기념관에서 자료집 발간을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류자명 연구를 위한 학제간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류자명 관련 자료 중 상당수는 농학 관련 저술이다. 이 분야에 문외한인 필자로서는 그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독립운동사 연구자와, 농학사나 관련 분야(벼·포도·감귤·장미 등)의 연구자가 동참하는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한 류자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류자명에 대한 전인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류자명의 생가 복원과 전시관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충주시와 류전회 사이에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나, 단체장의 교체로 무산된 상태이다. 이 약속을 믿고 류자명 유품의 상당수를 충주시에 기증한 류전회의 허탈감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현재 생가 터에는 후

50) 이는 『나의 회억』의 서문을 쓴 정성령의 표현이다.

손이 살고 있어서 생가의 복원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가와 함께 전시관의 조성도 필요하다. 다만, 류자명 개인을 주제로 한 전시관이 라기보다는, 그를 계기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아나키즘 관련 종합 전시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얼마 전 문경에 박열기념관이 완공되었으나, 개인 전시관에 지나지 않는다. 류자명을 모티브로 하여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사상체계였던 아나키즘운동 전시관을 조성한다면 한국독립운동사의 지평을 확대하고 아나키즘운동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내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논문접수: 2013. 11. 1, 심사시작: 2013. 11. 15, 심사완료: 2013. 12. 3]

주제어 : 류자명, 수기, 류전휘, 충주시, 아나키스트, 독립운동사, 호남성 당안관, 호남농업대학교 당안관, 중경 당안관
---

【참고문헌】

-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
- 류자명, 『한 혁명자의 회억록』(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자료  
총서 제14집, 1999)
- 류자명, 『나의 회억』, 료녕인민출판사, 1984
- 柳子明, 「赤色の 悲痛(상·중·하)」, 《朝鮮日報》 1927. 5. 13~5. 15
- 柳子明, 「高風亮節的金九先生」, 《世界史研究動態》 1980년 10월호
- 柳子明, 「朝鮮愛國歷史學家申采浩」, 《世界史研究動態》 1981년 2월호
- 류연산, 『행동하는 지식인 류자명평전』, 충주시·예성문화연구회, 2004
- 박결순, 「조선인 류자명을 품고 사는 중국 창사(長沙)의 사람들」, 《월  
간 독립기념관》 2006년 5월호
- 박결순, 『충북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2
- 박결순, 「申采浩의 아나키즘 수용과 東方被壓迫民族連帶論」, 《한국독  
립운동사연구》 제38집, 2011
- 박결순, 「아나키스트 류자명의 망향가, 죽어서 이룬 귀향의 꿈」, 《월  
간 독립기념관》 2012년 1월호
- 박결순, 「1920년대 北京의 韓人 아나키즘운동과 義烈鬪爭」, 《東洋學  
》 제54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3
- 安奇, 『戴勳章의 園藝學家 柳子明傳』 2판본, 中國農業出版社, 2004
- 이정식 면담/편집 해설 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 민음사, 2006
- 이호룡, 「류자명의 아나키스트 활동」, 《역사와 현실》 53, 한국역사연구회, 2004
- 충주시·충주MBC, 『유자명자료집①』, 유자명자료집간행위원회, 2006
- 한상도, 「유자명의 아나키즘 이해와 한·중연대론」, 《동양정치사상사  
》 제7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
- 한상도, 『한국독립운동의 시대인식 연구』, 경인문화사, 2011
- 황동연, 「이정규, 초기기주의적 한국 아나키즘의 실현을 위하여」, 《역  
사비평》 93, 2010

<ABSTRACT>

## **Anarchist Rye, Ja-Myeong's Data Statu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mories Newly Excavated**

Park, Geol-sun

Rye, Ja-Myeong is a unique existence i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in Korea. He did independence movement through the third thought called anarchism. In addition, he obtained the results of remarkable study of agriculture as an 'International friendship celebrity' living in China. As a result, he was the only person to receive all medals from the south and north Korea, the evaluation in Chinese academics was also very high.

This study is to organize the status of the data relating to Ryu, Ja-Myeong, to open two kinds of the memories which the researcher newly excavated in the process of the investigation and to discuss them. Currently in China, Ryu-Ja-Myeong was evaluated very high as an agriculturist. However, the research on this field was not done significa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pen the data list of Ryu-Ja-Myeong, to analyze comparing two kinds of the memories newly excavated with 『Revolutionist's minutes』 and to reveal their features, in particular to discuss contradicted truth. The data this researcher newly excavated is about 60 kinds of Hunam Agricultural University archive and materials relating to Ryu Jeon-Hwi collection use, the materials Hunam Province and Chongqing archive have, Ruy Ja-Myeong's hand written manuscripts and letters of Ryu Jeon-Hwi collection, etc.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existing memories with the memories was newly

excavated, the reason for not returning, the critique part about anarchism, the description of North Korea bias as a contradictory fact could be found.

As tasks to activate Ryu, Ja-Myeong's research and memorial business, first Ryu Ja-Myeong's critical biography and source book publication, second interdisciplinary studies for Ryu Ja-Myeong's research, third, Ryu Ja-Myeong's birthplace restoration and exhibition composition could be presented. Especially if creating a gallery for anarchism independence movement by making Ryu, Ja-Myeong as a motif, it's can be a very meaningful to push the boundaries of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Key words : Ryu, Ja-Myeong, memories, Chungju-si, anarchist, anarchism independence movement, Hunan Province archive, Hunan Agricultural University archive, Chongqing archive

